

【Abstract】

The Historical Meaning and Value of the Dogi-dong Fortress in Anseong

Yang, Si-eun

(Associate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Dogi-dong Fortress in Anseong is a Koguryo fortress located at the point where it connects Namseonggol Fortress in Sejong, Wolpyeong-dong Fortress in Daejeon, and Gukwon Fortress(國原城), where Chungju Koguryo Monument is located, which applied all-round pressure around Ungjin(熊津), the capital of Baekje, to Mongchon Earthenwall in the Han River basin. Although the fortress is located in a hill that is not very high at 78m above sea level, the view is secured in all directions, 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visible area, the inland traffic route leading to Juksan and the plain area formed along the Anseong Stream can be observed well.

The structure of the entire fortress has not yet been identified due to partial excavation, but it is believed that Baekje's first construction as the Earthen-walled fortress in the late 4th century was rebuilt and used as a wooden-fenced fortress by Koguryo, after occupied Hanseong(漢城) in 475. However,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 fortress wall is still being discuss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wall with the reinforced stone wal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stone wall was partially built or rebuilt in that it is the same as the construction method of Mudeung-ri 2nd Fortress in Yeoncheon.

The Dogi-dong Fortress in Anseong is of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and value in that it is an important site that can understand the process of Koguryo's southern advance and construction techniques.

Keywords: Anseong, Baekje, Koguryo, Dogi-dong Fortress, Earthen-walled Fortress, Wooden fenced Fortress

연구논문

백제 5方的 성격과 설치 시점 논의
- 『括地志』를 바탕으로 -*

장미애**

- I. 머리말
- II. 5方的 성격
- III. 5方的 설치 목적과 그 시점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翰苑』 所引 『括地志』의 내용을 바탕으로 6세기 이후 백제 지방 통치 체제의 최상위 통치 기관인 5方的 성격과 그 설치 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5方을 都督에 비견한 기록과 方領에 대한 기록이 주로 군사적 역할에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軍管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음을

* 해당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한원연구회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국의 한국학 자료와 7세기 동아시아-日本 소재 唐代類書, 《翰苑》 변이부의 종합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가톨릭대학교 강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方의 성격은 方의 위치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5方의 위치는 北方-웅진(공주), 東方-논산 은진, 西方-서산, 中方-고부, 南方-남원이었다. 이들의 위치는 도성이었던 泗泚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위치하며, 백제 남부 지역의 東·西 방면에 대한 군사적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북쪽에 치우친 都城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하였다.

方의 설치는 方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이는 2장에서 논의한 군사적 목적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도성에 대한 방어를 위해 北方을 시작으로 西方과 東方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어서 설치된 南方의 경우 신라·가야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中方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에 대한 통제의 목적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 5方, 方領, 軍管區, 翰苑, 括地志

I . 머리말

고대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앙통치체제의 양상과 함께 지방 지배 방식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요소로써 지적되어 왔다. 고대 국가의 성장 과정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영역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렇게 통합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 또는 통치했는가는 그 국가의 발달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요소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연구자들은 고대 국가의 지방 지배 방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는 백제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城·村을 중심으로 한 지방 지배에서 5方과 郡-城의 통치 체제를 마련한 지방 지배 방식으로의 이행 과정은 백제 지방 지배의 계기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백제 지방 지배 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지방 지배 방식을 보이는 것이 6세기 이후 나타나는 5方과 郡-城의 통치 체제이다.¹⁾ 6세기 이후 백제의 지방 통치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周書』, 『北史』, 『隋書』, 『翰苑』 所引 『括地志』(이하 『括地志』) 등에 전하는 方·郡·城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록만으로는 6세기 이후 보이는 백제 지방 통치 체제의 성립 과정과 운영 방식, 각 통치 단위의 구체적 위치 등을 온전히 복원해 내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백제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해서는 5方的 위치 및 성격, 方과 郡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백제 지방 통치 체제의 이해를 위해서는 5方的 성격과 方과 郡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方的 성격은 方과 郡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5方的 성격을 행정적 측면으로 이해할 것인가 군사적 측면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郡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는 한편, 『翰苑』 所引 『括地志』의 내용을 바탕으로 6세기 이후 백제 지방 통치 체제의 최상위 통치 기관인 方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는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括地志』에 전하는 백제 지방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 및 필자의 견해

1) 이에 대해서는 5方體制, 5方制, 方-郡-城制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광역행정단위로서 5方的 성립 이후 方과 郡, 城이 상하 관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方이 6세기 이후 백제의 광역 통치 단위로서 성립되었으며, 郡, 城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方과 郡, 城의 상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方-郡-城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백제 지방 통치 체제의 성격을 온전히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는 方과 郡의 관계, 方과 小城의 관계, 郡과 城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이 가운데 方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를 정리하고자 한다.²⁾ 그리고 III장에서는 5方的 성립 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5方的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II. 5方的 성격

백제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 사료는 『括地志』라고 할 수 있다. 『括地志』가 인용된 『翰苑』蕃夷部는 660년 張楚金이 찬술한 것으로 특히 東夷지역에 대한 정보는 隋·唐代の 최신 정보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³⁾ 이에 따른다면 『括地志』를 인용하여 전하고 있는 백제의 지방 통치 체제 역시 대체로 6~7세기 대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括地志』의 내용과 함께 백제 지방 통치 체제와 관련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 중국계 사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6세기 이후 백제 지방 통치 체제로서 5方的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5方的 성격에 대한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括地志』에 전하는 5方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5方的 성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5方的 성격은 백제 후기 지방 통치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제 후기 지방 통치 체제는 5方制 또는 5方體制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는 方과 郡, 城이 상하 통속 관계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5方을 중심으로 백제 지방 통치 체제를 명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즉, 5方に 백제 지방 통치 체제에서 최상위 통치 단위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2) 논의의 편의를 위해 5方的 위치, 성격 등에 대한 기존 견해는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3) 윤용구, 2021, 「『翰苑』의 편찬과 蕃夷部」 『백산학보』 120, 109쪽.

4) 이 외에 方-郡-城體制로 지칭하기도 하는데(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247쪽), 이는 방-군-성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통치 체제의 구축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백제 지방 통치 단위에서 5方的 지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한 견해를 보이지만, 실제 5방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5方的 성격에 대해서는 크기 두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다. 5方を 지방의 최상위 통치 단위로 보면서도 그 역할은 주로 군사적 역할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첫 번째이다.⁵⁾ 이는 5方에 대한 기록에서 대체로 方을 중국의 都督과 비교한 것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方은 최상위의 통치 단위로서 주로 군사적 측면에서 하위의 郡을 통솔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方의 성격으로 인해 方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역할을 하였고, 군사 부문을 제외한 民政에 있어서는 하위의 통치 단위인 郡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5方이 실질적으로 최상위 통치 단위로서 군정과 민정을 아우르는 광역 행정 기구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⁶⁾ 方이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方-郡-城으로 이어지는 누층적 지방 행정의 최상위 단위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본 것이다.⁷⁾ 따라서 5方制는 행정·군사적 면에서 中央政府-方-郡-城으로 이어지는 명령 계통을 구축함으로써,⁸⁾ 행정 단위들의 중층적 편제를 통해 효과적인 명령 체계와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으로⁹⁾ 보았다.

5) 今西龍, 1970, 『百濟史研究』, 國書刊行會, 289쪽;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46쪽; 盧重國, 1988, 위의 책, 260쪽; 김영심, 1997, 「百濟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155쪽; 정동준, 2011, 「백제 5方制의 지방관 구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63, 279-301쪽.

6) 鄭載潤, 1992, 「熊津·泗泚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上古史學報』 10, 522-525쪽; 박현숙, 1996, 「백제 泗泚時代의 지방통치체제 연구」 『韓國史學報』 창간호, 高麗史學會, 311쪽; 박현숙, 1998, 「百濟泗泚時代의 地方統治와 領域」 『百濟의 地方統治』, 學研文化社, 205-211쪽; 李鎔彬, 2001, 「百濟 5方制의 成立過程 研究」 『白山學報』 61; 南浩鉉, 2010, 「백제 사비기 지방통치거점의 복원을 위한 예비 작업」 『韓國上古史學報』 69, 128쪽.

7) 박현숙, 1988, 위의 논문, 205쪽.

8) 정재운, 1992, 위의 논문, 525쪽.

方의 성격은 方의 역할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이는 方과 하급 행정 단위, 특히 郡과의 관계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方의 위치 역시 方의 성격을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 『括地志』를 비롯한 諸史書에 전하는 方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A-① 지방[外]에는 다시 5方이 있으니, 中方은 古沙城, 東方은 得安城, 南方은 久知下城, 西方은 刀先城, 北方은 熊津城이다. … 五方에는 각각 方領 1인을 두어 達率로 임명하고, 郡에는 將 3인이 있으니 德率로 임명하였다. 方이 통솔하는 군사는 1천 2백명 이하 7백명 이상이였다. 城 내외의 백성들과 여러 小城들이 모두 나누어 예속되었다.¹⁰⁾

② 그 都城은 居拔城으로 固麻城이라고도 부른다. 지방에는 또 5方이 있다. 中方은 古沙城, 東方은 得安城, 南方은 久知下城, 西方은 刀先城, 北方은 熊津城이라 한다. … 五方에는 각각 方領 1인을 두어 達率로 임명하였으며, 方佐가 들어있다. 方에는 10郡을 두었으며, 郡에는 將 3인이 있으니 德率로 임명하였다. 통솔하는 군사는 1천 2백명 이하 7백명 이상이였다. 城 내외의 백성[人庶]들과 여러 小城들이 모두 나누어 예속되었다.¹¹⁾

③ 5方에는 각기 方領 한사람씩을 두는데, 方佐가 들어있다. 方에는 10郡이 있고 郡에는 將을 둔다.¹²⁾

9) 이용빈, 2001, 위의 논문, 121-141쪽.

10) 『周書』卷49, 列傳41 異域上 百濟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熊津城. …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郡將三人, 以德率爲之. 方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民庶及餘小城, 咸分隸焉.”

11) 『北史』卷94, 列傳82 百濟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熊津城. …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三人, 以德率爲之. 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人庶及餘小城, 咸分隸焉.”

12) 『隋書』卷81, 列傳46 東夷 百濟 “五方各有方領一人, 方佐貳之. 方有十郡,

④ 『括地志』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 또 5方이 있는데, 중국의 都督과 같으며, 方은 모두 達率이 다스린다. 각 方은 郡을 다스리는데, 많은 것은 열 개 [군]에 이르고, 적은 것은 예닐곱 개[군]이다. 郡將은 모두 恩率로 삼는다. 郡縣에는 道使를 두었는데, 또한 城主라고 하였다.”… 『括地志』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백제 왕성은 방 1리 반이다. 북쪽에 면하였으며, 돌을 쌓아 만들었다. 성 아래에는 만 여가 정도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5부의 거처이다. 한 부에는 병사 500인이 있다. 또한 나라 남쪽 260리에 古沙城이 있는데, 성은 방 150보이며, 이것이 中方이다. 방에는 병사 1,200인이 둘러싸고 있다. 나라 동남쪽 100리에는 得安城이 있는데, 성은 방 1리이며, 이것이 東方이다. 나라 남쪽 360리에는 卞城이 있는데, 성은 방 130보이며, 이것이 南方이다. 나라 서쪽 350리에는 力光城이 있는데 성은 방 200보이며, 이것이 西[方]이다. 나라 동북쪽 60리에는 熊津城이 있는데, 일명 固麻城이라고도¹³⁾ 한다. 성은 방 1리 반이며, 이것이 北方이다. 여러 방의 성은 모두 산의 험함에 기대어 쌓았으며, 돌로 쌓은 것도 있다. 그 [가운데] 병사는 많은 것은 1,000인, 적은 것은 700~800인이다. 성 안에 호가 많은 것은 1,000인[이고], 적은 것은 700~800인[이다]. 성 안에 호가 많은 것은 500가에 이른다. 諸城 좌우에는 또한 각각 小城이 있는데 모두 諸方이 통솔한다…”¹⁴⁾

郡有將.”

13) 『周書』에서는 固麻城이 도읍이라고 하였다.

14) 『翰苑』卷30, 蕃夷部 百濟 “括地志曰… 又有五方, 若中夏之都督. 方皆達率領之. 每方管郡, 多者至十, 小者六七. 郡將皆恩率爲之. 郡縣置道使, 亦名城主. … 括地志曰, 百濟王城, 方一里半. 北面, 累石爲之. 城下, 可萬餘家, 卽五部之所也. 一部有兵五百人. 又國南二百六十里, 有古沙城, 方百五十步, 此其中方也. 方繞兵千二百人. 國東南百里, 有得安城, 方一里, 此其東方也. 國南三百六十里, 有卞城, 方一百三十步, 此其南方也. 國西三百五十里, 有力光城, 方二百步, 此其西[方]也. 國東北六十里, 有能熊津城, 一名固麻城, 方一里半, 此其北方也. 其諸方之城, 皆憑山險爲之, 亦有累石者. 其兵多者千人, 少者七八百人. 城中戶多者千人, 少者七八百人. 城中戶多者至五百家. 諸城左右亦各小城, 皆統諸方. 又國南海中, 有大島十五所, 皆置城邑, 有人居之.”

A-①~④에서는 6세기 이후 백제의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해 전하고 있다. A-①~③에서는 方과 郡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전하는 것에 비해 A-④의 『括地志』에서는 매우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¹⁵⁾ 方의 위치와 규모, 方·郡·城에 파견된 지방관의 명칭과 관위, 인원, 方의 군사 규모 및 方城과 小城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백제의 지방제와 관련한 기록 가운데 가장 정리된 형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A-④의 내용을 바탕으로 A-①~③에 전하는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백제의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方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사료를 통해 보이는 方에 대한 기술에서의 특징이다. A-①·②·④에 따르면 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700~1,2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다. 方의 군사는 方領의 직속 부대로서 상비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方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군사의 숫자를 특기하는 것은 方이 가지는 군사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方에 소속된 군사의 숫자와 함께 A-④에 보이는 중국[中夏]의 ‘都督’과 같다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括地志』에서 전하는 ‘중국의 都督’이 어느 시점의 都督을 지칭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630년 대를 전후한 것으로 보이는 『括地志』의 편찬 시기를 고려할 때¹⁷⁾ 당 초기 또는 그 이전의 기록

15) 이 외에 백제의 지방제와 관련하여서는 『通典』에도 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고, 서술 대상 시기에 대한 특정도 어려워(정동준, 2011, 앞의 논문, 278쪽) 지방제도의 구체적 면모를 파악하는 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제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김영삼, 1997, 앞의 논문, 142쪽.

17) 『括地志』의 정확한 편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638년~641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김영삼, 1997, 앞의 논문, 139쪽). 한편 『括地志』의 편찬 시기에 대한 논의는 아니나 『括地志』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北史』 百濟傳 보다 후대, 즉 624년~630년 대 초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鄭東俊, 2010, 「『翰苑』百濟傳所引『括地志』の史料性格について」 『東洋學報』 92-2(鄭東俊, 2019,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法制度受容の研究』, 早稲田大學出版部,

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唐代의 都督에 대해 『通典』에서는 “관할하는 都督·諸州의 城隍·兵馬·甲仗·食糧·鎮戍 등을 관장한다.”¹⁸⁾고 하여 都督의 주요 업무가 군사 분야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진남북조의 군사적 성질을 계승한 것으로¹⁹⁾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적어도 『括地志』에 전하는 백제의 都督은 이러한 唐 전반기 이전 都督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에 전하는 方領과 관련한 기록이다.

B-① (15년; 554) 겨울 12월, 百濟에서 下部杆率 汶斯干奴를 보내 上表로써 말하기를, “百濟王臣 明과 안라에 있는 諸倭臣 등, 임나의 제국의 旱岐등이 말하기를, ‘생각해보면 斯羅는 無道하여 천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리와 같은 마음으로 바다 북쪽의 彌移居(みやけ)를 격멸코자 합니다. … 12월 9일에 斯羅를 공격하였습니다. 臣은 東方領 物部莫哥武連을 보내어 그 方의 군사를 지휘하게 해 函山城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였다.”²⁰⁾

② (7년; 660 7월) 18일, 義慈王이 太子와 熊津方領의 군사 등을 거느리고 熊津城으로부터 와서 항복하였다.²¹⁾

150쪽 재인용)).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括地志』에 전하는 도독과 관련한 내용은 唐 초기 내지 그 이전의 도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18) 『通典』 卷32, 職官14, 州郡上, 都督“掌所管都督諸州城隍·兵馬·甲仗·食糧·鎮戍等.”
- 19) 샤이엔(夏炎) 著, 이규호 譯, 2014, 「唐代 都督府와 州의 關係에 대한 試論」 『동국사학』 57, 694쪽.
- 20)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冬十二月, 百濟遣下部杆率汶斯干奴上表曰, 百濟王臣明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國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 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哥武連, 領其方軍士, 攻函山城. ….”
- 21)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年 7月 “十八日, 義慈率太子及熊津方領軍等, 自熊津城來降.”

사료 B-①·②는 백제의 方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B-①은 554년 관산성 전투와 관련하여 백제에서 倭에 사신을 보내 알린 내용이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眞興王15년 조에 따르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는 佐平 4명과 백제군 29,600명의 목을 베었다고 전하고 있어²²⁾ 이때 동원된 백제군은 3만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백제 성왕은 東方領 物部莫哥武連에게 ‘其方軍’, 즉 東方의 군사를 이끌고 函山城, 즉 관산성을 공격하도록 하고 있다.²³⁾ 이에 따르면 方의 주요 역할에서 군사적 측면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B-②의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B-②에 따르면 의자왕이 태자와 함께 ‘熊津方領軍’을 이끌고 항복하였음이 특기되어 있다.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시키기 직전 북쪽 변경으로 도주하였다고 전하는데²⁴⁾ B-②를 통해 볼 때 이때의 북쪽 변경은 北方城이었던 熊津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熊津方領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C- 義慈와 太子 隆이 北境으로 달아나니 定方이 나아가 그 城을 포위하였다. … 그 大將 彌植이 또한 의자를 이끌고 와서 항복하니 太子 隆과 여러 城主들이 모두 함께 정성으로 보내었다.²⁵⁾

2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年 “百濟王明禮與加良來攻管山城. … 於是, 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

23) 이때 동원된 東方의 군사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1만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김영삼, 1997, 앞의 논문, 98-100쪽).

24)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0年 “… 莫若使唐兵入白江, 沿流而不得方舟, 羅軍升炭峴, 由徑而不得並馬. … 於是, 合兵禦熊津口, 瀕江屯兵. 定方出左涯, 乘山而陣, 與之戰, 我軍大敗. … 唐兵乘勝薄城. 王知不免嘆曰, “梅不用成忠之言, 以至於此.” 遂與太子孝, 走北鄙. ….”

25) 『舊唐書』 卷83, 列傳33 蘇定方 “其王義慈及太子隆, 奔于北境, 定方進圍其城. … 其大將彌植, 又將義慈來降, 太子隆并與諸城主, 皆同送款.”

C에 따르면 당시 熊津方領으로 추정되는 禰植이 의자왕을 사로잡아 항복한 것으로²⁶⁾ 추정된다. 그런데 이때 禰植에 대해 『舊唐書』에서는 ‘大將’으로 표현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舊唐書』에서 熊津方領을 ‘大將’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方領의 주요한 역할이 군사적 측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方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方領의 역할이 군사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方 역시 군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료 A군에서 方城의 지리적 특징과 함께 군사의 숫자 등을 특기한 것 역시 方의 군사적 성격과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1> 5方的 위치에 대한 諸說

方名	方城名	위치	論者
中方	古沙城	古阜	
東方	得安城	논산 은진	
南方	久知下城(卞城)	전북 금구	今西龍
		전남 장성	이병도
		전남 구례	武田幸男
		남원	전영래, 김영심
		광주	박현숙
西方	刀先城(力光城)	나주	박현숙, 최미경
		서산	천관우, 김영심, 정재윤, 김근영
		대흥	천관우, 박현숙, 지원구
北方	熊津城(일명 固麻城)	나주·영암	전영래
北方	熊津城(일명 固麻城)	공주	

이러한 方의 성격은 方의 위치를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方의 위치에 대해서는 東·西·南·北·中의 方位와 도성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간단한 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²⁷⁾

26)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57쪽.

27) 표에 제시된 방의 위치와 관련한 諸論者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今西龍, 1970, 앞의 책, 290-293쪽;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西文化社, 426쪽;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210

<표 1>에 따르면 5方 가운데 中方과 北方, 東方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이견이 없다. 이외는 달리 西方, 南方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5方的 위치에 대해서는 王都를 제외한 전국의 東·西·南·北·中의 중요 거점에 위치시킴으로써 전국에 대한 균형적 통제를 꾀한 것으로 보기도²⁸⁾ 한다. 이외는 달리 方城의 위치가 백제 전역에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형식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⁹⁾ 方의 위치는 方의 역할 및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5方 가운데 위치에 대한 큰 이견이 없는 北方 熊津城과 中方 古沙城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北方 熊津城의 경우 백제의 두 번째 도성이었던 熊津이 두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B·C의 사료를 통해 볼 때 北方은 泗泚都城의 북쪽에 위치하면서 도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中方 古沙城의 경우는 北方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方이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古沙夫里, 즉 古阜 지역은 사비도성 시기를 기준으로 한 백제의 영역에서 보았을 때 지리적 중앙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고부 지역의 경우 후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고려에서 안남도호부가 설치되었던³¹⁾ 지역이기도 하

~217쪽; 武田幸男, 1980, 앞의 논문, 45쪽; 全榮來, 1988, 「百濟 地方 制度와 城郭」 『百濟研究』 19; 박현숙, 1996, 앞의 논문, 295~301쪽; 김영심, 1997, 앞의 논문, 143-153쪽; 정재운, 2014, 「백제의 서산 지역 진출과 운영」 『역사와 담론』 72, 397-398쪽; 지원구, 2018, 「百濟 西方城 位置 性格」 『百濟文化』 58, 133-143쪽; 김근영, 2018, 「백제 논산 지역 지배와 동방성」 『韓國古代史研究』 90, 67-78쪽; 최미경, 2020, 「사비시기 백제의 영산강유역 지배와 南方城」 『韓國古代史探究』 34, 485-495쪽; 김근영, 2021, 「백제 서방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103, 134-143쪽

28) 박현숙, 1996, 앞의 논문, 301쪽; 김영심, 1997, 앞의 논문, 129쪽.

29) 武田幸男, 1980, 앞의 논문, 45쪽.

30) 박현숙, 1996, 앞의 논문, 297쪽; 同, 1998, 앞의 논문, 182쪽.

31) 고려의 안남도호부는 다양한 지역에 설치되었다. 후백제 멸망 직후 고려

었다. 고려시대 안남도호부는 대체로 후백제의 중심지였던 전주 혹은 서해안 해안선의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를 참고한다면 中方城이 고부지역에 설치되었던 것은 백제 영역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도성과 남부지역을 잇는 교통의 結節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백제의 사비도성이 전체 영역을 기준으로 할 때 다소 북쪽에 치우쳐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성 남쪽의 서해안 방어선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中方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³²⁾

도성을 방어하는 데 주요 역할이 있었던 北方과 도성의 지리적 위치를 보완하는 한편, 서해안 방어선 구축에서 주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中方의 경우를 참고한다면 東·西·南方의 역할과 그에 따른 위치 역시 이와 유사한 측면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東方의 경우를 살펴보자.

東方은 일반적으로 충남 論山市 恩津으로 비정되고 있다.³³⁾ A-①·②·④에 따르면 東方의 治所城은 得安城으로 기록되고 있다. 東方城의 명칭인 得安城의 경우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恩津縣은 德恩

태조가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두었으나 태조23년(940)에 전주로 복원하였다. 그 이후 고려 광종2년(951)에는 고부가 안남도호부가 되었으나 성종14년(995)에 영암에 낭주안남도호부가 설치되었으며, 현종9년(1018) 전주에 다시 안남대도호부가 설치되면서 고부는 현종10년(1019)에 이름을 고부로 바꾸었다. 한편 의종4년(1150)에 다시 지금의 부평지역에 안남도호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 32) 方의 주요한 역할로서 군사적 역할이 강조된다고 볼 경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통로이다. 군사적 역할에 있어서 방어 기지로서 충분한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와 함께 적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我軍에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수물자의 수송이 편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통로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東方과 中方뿐만 아니라 뒤이어 살펴볼 西方이 가지는 지리적 위치에서 교통의 편리성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33) 今西龍, 1970, 앞의 책, 290-293쪽; 千寬宇, 1979, 앞의 논문 210-217쪽; 全榮來, 1988, 앞의 논문; 박현숙, 1996, 앞의 논문, 295-301쪽; 김영심, 1997, 앞의 논문, 143-153쪽; 김근영, 2018, 앞의 논문, 67-78쪽.

郡으로 본래 백제의 德近郡이었으나 신라 景德王 대에 德殷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德恩郡으로 다시 고쳐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⁴⁾ 논산 지역은 공주·부여·익산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지역으로서 웅진·사비 도성의 방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다.³⁵⁾ 百濟 末 나당연합군 중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탄현을 지난 직후 계백이 이끄는 백제의 5천 결사대와 결전을 벌인 곳이 黃山으로³⁶⁾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으로 비정되는 곳이다.³⁷⁾ 이 황산에서의 결전에서 패한 직후 의자왕이 熊津江口에 병사를 모아 주둔시킨 것을 통해 볼 때 논산지역은 사비도성의 최후의 방어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러한 東方의 주요 역할에 대해 신라와의 국경지대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北方의 후방으로서 역할, 중방과의 연계 등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³⁸⁾ 東方의 역할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方의 역할 및 성격과 관련하여 北方과 中方의 역할과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方의 역할이 도성의 방어에 집중되어 있는 점, 中方의 경우 백제의 남부 지역과의 연계 및 서해안 지역의 방어선 구축에서의 역할이 중심이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東方이 신라에 대한 방어선의 구축, 北方의 후방으로서 도성 방어와 함께 백제 남부 지역과 연계된 중방과의 연계라는 점에서 方의 군사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西方과 남방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西方은 서산 또는 예산 대흥면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⁹⁾ 초기에는 예산 대흥면에

34) 『新增東國輿地勝覽』卷18, 恩津 “德恩郡, 本百濟德近郡. 新羅景德王改德殷, 高麗初改德恩郡.”

35) 김근영, 2018, 앞의 논문, 47쪽.

36)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 又聞唐羅兵已過白江·炭峴, 遣將軍階伯, 帥死士五千出黃山, 與羅兵戰, 四合皆勝之, 兵寡力屈竟敗, 階伯死之. 於是, 合兵禦熊津口, 瀕江屯兵. ...”

37) 정구복 外, 2012, 『역주 삼국사기3 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833쪽.

38) 김근영, 2018, 앞의 논문, 67-68쪽.

위치했던 任存城이 백제 말 흑치상지가 부흥군을 모아 나당연합군에 저항했으며, 이때 흑치상지가 西部人으로 기록된 것을⁴⁰⁾ 토대로 이 지역이 西方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括地志』에 기록된 西方城의 규모와 한성시기부터 두각을 나타냈으며 對중국 교통로로서의 지리적 이점 등 서산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징을 기반으로 서산에 西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⁴¹⁾ 서산마애삼존불의 존재 등을 통해 보았을 때 서산의 對중국 교통로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서산은 보다 서쪽의 태안과 비교적 내륙까지 포괄하는 교통로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은 19세기 전반에 그려진 東域圖 가운데 지금의 태안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이다(<그림 1>).⁴²⁾ 이에 따르면 서산은 태안-서산-해미-덕산-예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중심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태안반도로부터 예산을 거쳐 백제의 내륙지방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중심에 서산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³⁾

39) <표 1> 참고.

40) 『三國史記』卷44, 列傳4 黑齒常之 “黑齒常之, 百濟西部人. … 蘇定方平百濟, 常之以所部降, 而定方囚老王, 縱兵大掠. 常之懼, 與左右酋長十餘人逃去, 嘯合逋亡, 依任存山自固. 不旬日, 歸者三萬. 定方勒兵攻之, 不克, 遂復二百餘城.”

41) 김근영, 2021, 앞의 논문, 126~145쪽. 이러한 서산 지역 중에서도 유적의 권역별 위치와 그 연계성을 고려하여 西方城의 구체적 위치를 基郡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정재윤, 2014, 「백제의 서산 지역 진출과 운영」 『역사와 담론』 72).

42) 이미지 출처: <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지도 원문) 지도에서 노란색 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군현의 치소 또는 兵營·水營이 있던 곳이며, 작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鎭堡가 있던 곳이다.

43) 서산의 하천 방향은 대교천과 해미천이 합류하여 천수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방향과 용장천으로 합류하여 석문방조제로 흘러가는 방향, 서산만으로 흘러가는 방향의 세 방향의 하천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용장천 수계 깊숙이에 위치한 서산마애삼존불은 7세기를 전후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對중국 교통로에 위치하여(정재윤, 2014, 앞의 논문, 371-379쪽) 해로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선원 등의 안전을 빌기 위한



<그림 1> 東域圖 경기·충청도 일부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北方과 中方·東方의 경우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서산의 경우 웅진 천도 이후 한강 유역을 통한 對중국 교통로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보다 더 부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西方 역시 교통로 상에 위치함과 동시에 해안에서 내륙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지금까지 살펴본 中·北·東·西方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추정은 南方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南方은 위치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은 곳이다. 『括地志』에 기록된 도성으로부터 南方까지의 거리와 南方城의 크기 등과 함께 앞서 살펴본 각 方의 역할도 함께 고려하여 南方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南方은 그 명칭 상 中方인 고부보다 남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北方보다 西方이 서북쪽에 위치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남방이 반드시 中方의 정남쪽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교통과 방어가 중심 역할이었던 측면에서 본다면 南方은 백제의 방어선 구축에 있어

목적에서 세워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44) 정재운, 2014, 앞의 논문, 390-398쪽.

서 중요한 거점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되는 곳이 남원지역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남원이 『括地志』에 기록된 ‘國南三百六十里’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변경에 접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 남원에 南方이 위치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도 하였다.⁴⁵⁾ 그러나 변경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그 지역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백제의 경우 6세기 이후 신라와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서 남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신라에 대한 방어선 구축이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남원에 南方이 위치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南方 이외에 다른 方의 위치 역시 南方의 위치를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6세기 이후 신라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라와의 변경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東方이 상주-보은-옥천 방면으로 이어지는 신라와의 전투에 대비하는 방어선의 역할을 하였다면, 합천-남원 방면으로 이어지는 남부 지역에서의 신라와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선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西方과 中方이 서해안 지역 교통로에 대한 장악과 방어선 구축의 역할을 하였다면, 東方과 南方은 백제 동부 지역의 방어선 구축에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원 지역에 南方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비도성과 각 방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5) 박현숙, 1996, 앞의 논문, 299쪽. 박현숙은 남원이 백제의 영역으로 기록된 것은 사비시대 이후 백제의 영향권 아래 놓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 南方은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찾아야 하는데, 『括地志』에 기록된 위치 문제와 함께 영산강 유역에 잔존해 있던 마한 세력에 대한 통제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광주 또는 나주에 南方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박현숙, 1998, 앞의 논문, 183-202쪽).



<그림 2> 사비도성과 五方の 위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方은 사비도성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西方-北方-東方으로 이어지는 方의 위치는 사비도성을 에워싸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中方과 南方은 도성의 남부 지역과의 연계와 각각 서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방어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方의 위치와 『周書』·『北史』·『括地志』 등에서 方領을 都督에 비견한 점, 東方領과 熊津方領 기록에 보이는 군사 방면에서의 역할 등은 方이 가지고 있었던 軍管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方의 성격에 유의하면서 方의 설치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5方의 설치 목적과 그 시점

5方은 도성에 대한 방어와 전체 백제 영역에 대한 방어선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5方의 설치가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였을까?⁴⁶⁾ 이는 方의 설치 목적과 위치 등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方의 위치를 통해 성립 시기를 유추해 보자.

앞서 언급하였듯 5方은 사비도성을 중심으로 방사선에 위치하거나 주요 군사적 요충지 또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5方의 위치는 사비도성이 기준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비가 도성으로서 결정된 이후 5方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6) 5方의 설치 시기와 관련하여 5方制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우선 5方制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견해이다. 이는 대체로 『周書』에 熊津이 北方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노중국, 1988, 앞의 책, 247-248쪽; 정재윤, 1992, 앞의 논문, 521쪽). 이와는 달리 郡이 담로의 기능을 계승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5方은 담로에 의한 지역지배가 행해졌던 시기, 즉 사비로의 천도 이전 단계부터 확립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김영심, 1997, 앞의 논문, 129-137쪽). 웅진 시기에 5方이 성립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다른 연구로는 5方의 설치가 前代의 지방통체제도 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백제는 이미 6세기 전반경 부소산성과 나성을 축조하는 등 사비 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웅진시기에 5方이 설치되었으며, 그 구체적 시기는 무령왕 12년(512)을 전후한 시점이라고 본 견해도 있다(이용빈, 2001, 앞의 논문, 141-152쪽). 또는 5方은 사비천도 이후 이루어진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와(박현숙, 1998, 앞의 논문, 176~177쪽) 6세기 전반부터 점진적 변화 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 『周書』 - 『括地志』 - 『舊唐書』의 기록의 차이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李根雨, 1997, 「百濟의 方郡城制 관련사료에 대한 재검토」 『韓國 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357-359쪽).

다.47) 그렇다면 사비지역이 도성으로 결정된 시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비도성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48) 사비도성의 조성 시기를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은 부소산성의 東門址 부근에서 출토된 大通銘印刻瓦片이다. 梁의 大通 연간이 527~529년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축조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웅진시기에 이미 축조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530년 대 이전 시기에 이미 백제는 사비로의 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비도성의 축조가 시작된 시점이 사비로의 천도를 결정한 시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비도성 축조 이전에 이미 사비로의 천도가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D-① (23년; 501) 8월에 加林城을 쌓고 衛士佐平 苜加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49)

② (23년; 501) 겨울 10월에 왕이 사비 동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다.50)

사료 D-①·②는 사비 천도의 준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인용되는

47) 方의 설치 계획과 5方이 정연하게 갖추어진 5方制의 완전한 실시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方이 초기에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설치가 계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현재 알려진 것과 같은 5方的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5方制의 형태는 5方이 완전히 갖추어진 이후에 비로소 완전한 지방 통치 체제로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方的 본래적 성격인 軍管區의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백제의 지방 통치 체제의 최상위 통치 기관으로서 행정의 일면까지 담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8) 사비도성 축조 시기에 대한 諸견해는 沈正輔, 2000, 「百濟 泗泚都城의 築造時期에 대하여」 『사비도성과 백제의 성곽』, 서경문화사, 78-82쪽 참고.

49)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23年 “八月, 築加林城, 以衛士佐平苜加鎮之.”

50)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23年 “冬十月, 王獵於泗泚東原.”

사료들이다. D-①에 기록된 加林城은 지금의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聖興山城으로 비정되고 있으며,⁵¹⁾ 사비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加林城 축조 직후 동성왕이 사비 동쪽에서 田獵을 행했다는 점은 이 시기 사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웅진은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고립된 지역이었으며, 도성이 자리하기에는 협소한 측면이 있었다.⁵³⁾ 이에 일찍부터 천도가

51) 이병도, 1977, 앞의 책, 401쪽.

52) 동성왕은 재위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田獵을 행하였다. 동성왕 5년(483) 웅진 북쪽, 14년(492) 우명곡, 22년(500) 우두성에서의 田獵과 D-②에 보이는 사비 동쪽에서의 전렵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D-②의 사례를 제외하면 그 구체적 위치를 알 수 없다. 한편, 동성왕 대 이루어지는 城 축조 기사 역시 주목된다. 8년(486) 우두성, 12년(490) 사현·이산성, 20년(498) 사정성, 23년(501) 탄현의 목책이 축조되는 데, 이 가운데 탄현의 목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城이 북쪽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성왕 재위 기간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고구려와의 관계였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는 국경을 접하고 있던 북중국 및 몽골 고원의 국가와의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쪽으로의 진출에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296-297쪽). 이로 인해 백제는 도성이었던 한성을 함락당하게 되고 갑작스러운 웅진 천도가 이루어졌다. 때문에 이 시기 백제의 주요 대외 현안은 고구려와의 대립에 있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동성왕 23년 백제는 갑작스럽게 탄현에 목책을 세워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성왕 15년(493) 신라와 通婚을 하고 고구려의 공격에 대해 백제·신라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더욱이 이후 무령왕과 성왕 대에도 주로 고구려와의 전쟁이 중심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이는 더욱 이해가 힘든 정황이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성왕 때까지 이어지던 백제와 신라의 연대가 이후 무령왕과 성왕 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이다. 551년 이루어지는 한강 유역에 대한 공격에서 신라와의 연대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553년 신라의 동북 변경 탈취와 新州 설치로 인해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동성왕 말부터 점차 백제와 신라 사이의 연대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백제는 고구려 외에 신라에 대한 대비도 점차 필요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3) 申滢植, 1992, 『百濟史』, 이화여대출판부, 168-169쪽; 李基東, 1996, 『百濟史研究』, 一潮閣, 27-28쪽; 이용빈, 2001, 앞의 논문, 144-145쪽.

능성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성왕 대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田獵 행위는 천도지의 물색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사비 지역의 지리적 이점이 주목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비 지역의 경우 백마강과 부소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을 통해 바다로 나가는 것 또한 용이하다는 점에서 교통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남쪽과 동쪽으로는 벌판이 있어 농업 생산력도 뒷받침 되는 곳이었다.⁵⁴⁾ 이러한 측면에서 일찍부터 사비 지역이 새로운 도성으로서 주목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천도는 도성을 옮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축이 되는 중앙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 위상과 위치도 변화를⁵⁵⁾ 초래한다. 따라서 사비로의 천도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지방에 대한 새로운 통치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성왕 대에 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 재편 역시 그 논의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⁶⁾ 다만, 동성왕 대에 이루어지는 천도 계획은 사비로의 천도를 완전히 시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方의 편성이 동성왕 대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적다.

사비로의 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大通銘 인각와와 함께 부여 羅城의 청산성에서 출토된 연화문 전돌이 주목된다. 大通銘 인각와는 공주 대통사지에서도 출토

54) 노중국, 2018, 『백제정치사』, 일조각, 361쪽.

55) 田中俊明, 1997, 「熊津時代 百濟의 領域再編과 王·候制」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54쪽.

56) 동성왕 대에 사비 천도가 이미 준비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先學들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노중국, 1988, 앞의 책, 166쪽; 尹武炳, 1994, 「百濟王都 泗泚城 研究」 『學術院論文集』 33, 91쪽; 강중원, 2005, 「百濟 泗泚都城의 經營과 王權」 『古代 都市와 王權』, 서경, 33-37쪽). 동성왕 대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에 걸친 전렵과 加林城의 축조 등은 사비 천도를 위한 사전 준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웅진 도성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와 동성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 역시 이와 같은 선학의 견해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되었으며, 연화문 전들의 경우 무령왕릉과 교촌리 2호분, 정동리 와요지 출토품과 같은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무령왕릉 전들의 경우 늦어도 525년에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⁷⁾ 무령왕릉 전들의 생산 시기, 大通銘 인각와에 보이는 ‘大通’ 연호의 사용 시기 등을 통해 보면 적어도 527년을 전후해서 사비로의 천도가 계획·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⁵⁸⁾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성왕 전반기에는 사비를 중심으로 한 백제 영역에 대한 통치 체제의 재편도 함께 검토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方의 설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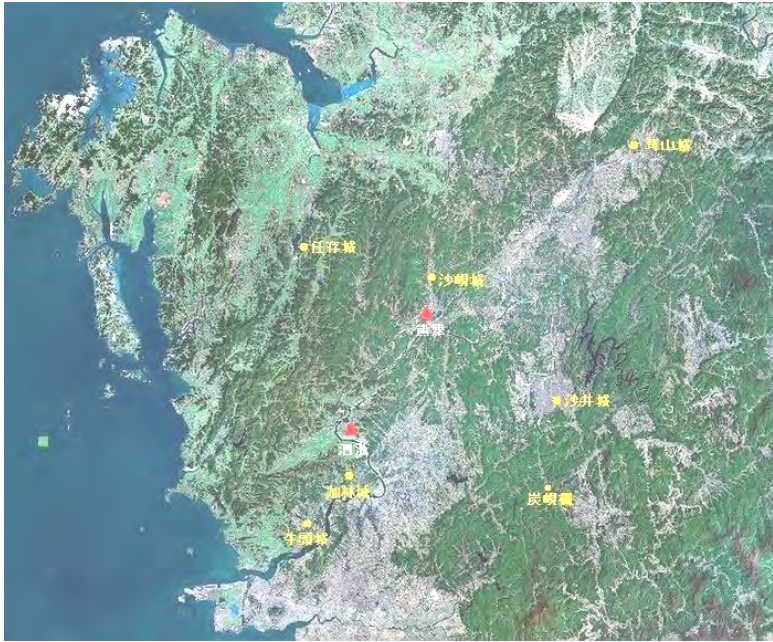
方의 설치가 사비 천도 이전에 계획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 모든 方이 설치가 계획·실현되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5方を 비롯한 郡·城에 의한 지방 통치는 중앙에 의한 지방에 대한 일원적 지배질서의 성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지방에 대한 지배는 지역적 편차에 따라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⁵⁹⁾ 또한 方의 설치가 군사적 목적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 그 필요성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方의 설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方이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에 주로 설치되었으며, 대체로 사비 천도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이미 언급하였다. 동성왕~무령왕 대에는 다양한 축성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들 중 그 위치가 추정 가능한 지역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57) 노중국, 2018, 앞의 책, 364쪽.

58) 遷都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성지의 선정, 도성의 조영 등에 상당한 시간과 물자가 투자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사비로의 천도를 위한 준비는 동성왕 대부터 시작된 도성지에 대한 물색과 그 이후 천도를 위한 준비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도성의 이동에 따른 정치 세력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장미애, 2015, 「백제 후기 정치 세력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3쪽) 도성의 이동에 따른 정치 세력간 이해 관계의 조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9) 홍승우,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230-231쪽.



<그림 3> 동성왕~무령왕대 축성지역⁶⁰⁾

이 시기의 축성은 당시 도성이었던 웅진 방어를 1차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축성된 지역들의 경우 사비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方 역시 1차적으로는 도성 방어를 위한 지역들에 우선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北方의 경우 지리적, 군사적 측면에서 熊津이 方의 설치 계획단계부터 方城의 하나로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聖王 4년에 熊津城을 修築함과 동시에 沙井柵을 세웠다는 기록이 주목된다.⁶¹⁾ 아직 사비로 천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60) <그림 3>은 장미애, 2015, 위의 논문, 61쪽의 그림을 재인용한 것이다.

61)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聖王 “四年冬十月, 修葺熊津城, 立沙井柵.”

점에서 都城에 대한 정비기사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왕 대 이루어지는 都城 정비 기사에서는 대체로 宮室의 重修,⁶²⁾ 臨流閣⁶³⁾ 등과 같이 궁에 대한 정비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熊津城’을 修築한다는 것은 궁 또는 宮室의 重修와는 달리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城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하였듯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미 사비로의 천도가 계획되고 있었다면, 熊津을 개편하여 北方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沙井柵을 세웠다는 기록 역시 方의 설치에 대한 논의에서 의미를 지닌다. 앞서 동성왕 20년에 沙井城을 축조하고 扞率 毗陁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⁶⁴⁾ 또한 동성왕 12년에는 沙峴城과 耳山城을 쌓고 있다.⁶⁵⁾ 이 시기 백제는 고구려와 대립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對 고구려 방어선의 구축을 위해 두 성을 쌓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⁶⁶⁾ 沙井城 역시 같은 목적에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산만-병천-전의-연기-대전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웅진 천도 이후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였다는⁶⁷⁾ 연구를 참고한다면, 이른 시기부터 해안에서 웅진으로 이어지는 지역들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西方의 설치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이와 같은 西·北方의 설치와 함께 東方 역시 이미 사비천도 계획 단계부터 그 설치가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中方과 南方의 설치 계획 및 설치 시점의 문제가 남는다. 中方과 南方의 경우 그 위치적 특성과 관련하여 볼 때 가야 및 신라

62)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8年 “秋七月, 重修宮室, 築牛頭城.”

63)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二十二年春, 起臨流閣於宮東, 高五丈. 又穿池養禽. 諫臣抗疏, 不報, 恐有復諫者, 閉宮門.”

64) 『三國史記』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20年 “秋七月, 築沙井城, 以扞率毗陁鎮之.”

65) 『三國史記』권26, 백제본기4 東城王 “十二年秋七月, 徵北部人年十五歲已上, 築沙峴耳山二城.”

66) 李昉燮, 2016, 「古代 地方道路와 陸上交通路」 『호서고고학』 35, 173쪽.

67) 李昉燮, 2016, 위의 논문, 175-180쪽.

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의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는 것은 6세기 전반부터였다.⁶⁸⁾ 512년 임나4현, 513년 기문, 529년 대사로의 진출과 540년 대 이후 국제회의를 통한 가야 諸國에 대한 통제의 시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544년 백제가 가야 지역에 郡領·城主를 파견한 데 대한 가야 諸國의 반발은⁶⁹⁾ 이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직접 지배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백제와 가야 諸國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시기 백제의 진출 지역이었던 기문·대사의 위치가 대체로 남원, 하동 등으로 비정되고 있는 점은 南方의 설치 시점을 추정하는 데 있어 시사되는 바가 있다. 더욱이 6세기 중반 신라의 가야 지역 점령과 백제와 신라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남부 경계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 남부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의 강화 과정에서 中方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전남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는 6세기 중엽부터 본격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영산강 유역의 토착 세력은 영산강식석실분과 같은 독특한 묘제를 지속할 만큼 일정 정도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⁷⁰⁾ 이들에 대한 직접 통제를 위한 측면에서 中方의 설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았을 때 5方的 설치는 그 계획에서 설치에 이르기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성을 중심으로 北方, 西方, 東方이 설치되고, 그 이후 신라·가야와의 관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 세력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南方과 中方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⁷¹⁾ 이와 같은 方的

68) 백제의 가야 지역 진출과 관련한 논의는 장미애, 2020, 「6세기 백제의 가야 진출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97 참고.

69)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年 “二月…後津守連 遂來過此 謂之曰 今余被遣於百濟者 將出在下韓之 百濟郡令城主…”

70) 문안식·이대석, 2004, 『한국 고대의 지방사회-영산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혜안, 122쪽.

설치 과정은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方 설치의 기본적 목적이 군사 방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백제의 지방 통치 체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5方은 檐魯와 함께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이었다. 『周書』, 『北史』, 『翰苑』 所印 『括地志』 등에 전하는 정보가 다른 백제 지방 통치 체제에 비해 많은 편이긴 하지만, 당시 지방 통치 체제의 전반을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括地志』의 정보를 바탕으로 5方的 성격과 그 설치 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方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方을 都督에 비견한 기록과 方領에 대한 기록이 주로 군사적 역할에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軍管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方의 성격은 方의 위치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각 方의 위치를 北方-웅진(공주), 東方-논산 은진, 西方-서산, 中方-고부, 南方-남원으로 비정하였다. 이들의 위치는 각각 도성이었던 泗泚를 중심으로 방사상에 위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부 지역의 東·西 지역의 방어 및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군사

71) 이와 같은 方의 설치 과정을 상정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5方’이라는 方의 구성이 처음부터 계획 하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확인되는 5方과 관련한 기록은 모두 5개의 方의 설치된 이후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설치 시점부터 ‘5方’을 염두에 두고 설치한 것인지 方의 설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方으로 정립된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본고에서는 처음부터 5方的 설치를 계획한 것 이라기 보다는 方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5개의 方으로 정립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본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方을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지방 기구로 볼 수 있다면, 방의 설치는 군사적 거점에 이루어지면서 중앙·남방의 설치 이후 최종적으로 5方으로 정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5方이 완전하게 정립된 이후에 方은 군사적 목적 이외에 점차 백제 최상위 지방 통치 기구로서 행정적 역할도 겸하여 가는 형태로 변화해 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적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북쪽에 치우친 都城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方의 성격에 유의하면서 3장에서는 5方的 설치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方의 설치는 方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이는 2장에서 논의한 군사적 목적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선 도성에 대한 방어를 위해 北方을 시작으로 西方과 東方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점에 南方과 中方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南方의 경우 신라·가야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中方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에 대한 통제의 목적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백제의 지방 통치 체제에서 方은 최상위 통치기관이면서도 그 역할이 군사적 성격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方이 지방 통치에 있어서 民政적 측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方의 군사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지방에 대한 일원적 통제는 백제 후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方과 하위 통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郡과의 관계, 『括地志』에 기록된 小城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볼 때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後考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투고일: 2021.11.14, 심사개시일: 2021.11.22, 게재확정일: 2021.12.13.]

【참고문헌】

1. 단행본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_____,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_____, 2018, 『백제정치사』, 일조각.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문안식·이대석, 2004 『한국 고대의 지방사회-영산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해안.
申滢植, 1992, 『百濟史』, 이화여대출판부.
李基東, 1996, 『百濟史研究』, 一潮閣.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정구복 외, 2012, 『역주 삼국사기3 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今西龍, 1970, 『百濟史研究』, 國書刊行會.
鄭東俊, 2019,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法制度受容の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2. 논문

- 강종원, 2005, 「百濟 泗泚都城의 經營과 王權」, 『古代 都市와 王權』, 서경.
김근영, 2018, 「백제 논산 지역 지배와 동방성」, 『韓國古代史研究』 90.
_____, 2021, 「백제 서방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103.
김영심,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南浩鉉, 2010, 「백제 사비기 지방통치거점의 복원을 위한 예비작업」, 『韓國上古史學報』 6.
박현숙, 1996, 「백제 泗泚時代의 지방통치체제 연구」, 『韓國史學報』 창간호.
_____, 1998, 「百濟 泗泚時代의 地方統治와 領域」, 『百濟의 地方統

治』, 學研文化社.

사이엔(夏炎) 著, 이규호 譯, 2014, 「唐代 都督府와 州의 關係에 대한 試論」, 『동국사학』 57.

沈正輔, 2000, 「百濟 泗泚都城의 築造時期에 대하여」, 『사비도성과 백제의 성곽』, 서경문화사.

尹武炳, 1994, 「百濟王都 泗泚城 研究」, 『學術院論文集』 33.

윤용구, 2021, 「『翰苑』의 편찬과 蕃夷部」, 『백산학보』 120.

李根雨, 1997, 「百濟의 方郡城制 관련사료에 대한 재검토」, 『韓國 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李鎔彬, 2001, 「百濟 5方制의 成立過程 研究」, 『白山學報』 61.

李旼燮, 2016, 「古代 地方道路와 陸上交通路」, 『호서고고학』 35.

全榮來, 1988, 「百濟 地方制度와 城郭」, 『百濟研究』 19.

장미애, 2015, 「백제 후기 정치 세력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0, 「6세기 백제의 가야 진출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97.

田中俊明, 1997, 「熊津時代 百濟의 領域再編과 王·候制」,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정동준, 2011, 「백제 5方制의 지방관 구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63.

鄭載潤, 1992, 「熊津·泗泚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上古史 學報』 10.

_____, 2014, 「백제의 서산 지역 진출과 운영」, 『역사와 담론』 72.

지원구, 2018, 「百濟 西方城 位置 性格」, 『百濟文化』 58.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최미경, 2020, 「사비시기 백제의 영산강유역 지배와 南方城」, 『韓國 古代史探究』 34.

홍승우,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學生社.